
2021년 제4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0. 1. ~ 10. 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0. 1.	시청률	0.004

【총 평】

청년들의 귀농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두 도시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다루었고, 도심의 일상생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포항시의 일제 강점기의 문화 흔적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시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감염에 관한 역사 자료 전시회와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색 있는 미디어아트와 현대미술 작품과 설치미술을 전시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이 밖에 신체적 규정을 스스로 노력하여 그 규정을 바꾸고 육군 장교의 꿈을 이룬 육군 장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 청년 귀농 희망 키운 '뭉하농 두 달 살이'
충북 괴산의 '뭉하농' 농업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 희망 청년들에게 선배 귀농인이 표고버섯 재배,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나비 키우는 법 등을 가르쳐 준다.
- '한달창업 in 청양군' 청년 창업 꿈 키워요
충남 청양군의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은 도시 청년들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와 도전, 정착까지 돕고 있다. 이 사업은 '한달창업 in 청양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대학생, 캠퍼스 주변 '합동 순찰' 참여
서울시의 주택가 중에서 범죄에 취약한 장소들을 대학생들과 경찰이 함께 순찰을 한다. 대학생들은 범죄 예방 시설도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얻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합동 순찰 활동은 올 상반기 서울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아픈 역사의 현장,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가다
포항 구룡포에 있는 일제 강점기의 건물과 장소들을 복원하여 문화재거리를 조성하였다. 일본 강점기의 일본식 건물이 현재 28채 남아 '일본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근대 문화역사관에는 100년 전 일본인들의 생활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역사 속 감염병 극복 기록, 일상 회복 꿈 키워
국가기록원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다시 일상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의 역사기록을 모아놓은 전시로 세종실록부터 조선시대 말, 최근까지 당시 감염병의 역사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 육군 장교 유심건, 3cm의 장벽을 허물다
신장 161cm로 육군 장교 선발 신체규정인 164cm에 도전하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렸고 마침내 규정을 바꾸고 육군 장교가 된 사연을 소개했다. 올해 말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으며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0. 1.	시청률	0.014

【총 평】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 전략’편은 산업수요와 대학공급 전문인력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신산업 인재 양성 촉진 정책을 진단해 보았다. 지난 9월29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람투자인재 양성협의회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혁신 의제 설정 효과가 기대된다. 왜 이 시점에서 신산업 인재양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실히 하여 설득력을 높인 구성이 돋보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수요 기반 인력육성 방안 시스템 구축,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지역활성화 측면으로 상세히 소개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알뜰신잡’에서는 최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해 증상, 원인, 예방 생활수칙을 자세히 안내해 도움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임산부 백신접종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방역규제 해제 소식을 전하며 국내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있어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따른 기술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도표를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몰입도를 높였다.

미래사회로의 원활한 변화를 위해 정부가 수요기반의 기술인재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세 상변화의 트렌트와 실제 정부, 사회가 육성하는 인재 간에는 시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에서는 현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반면 기업체에서는 수요가 있으나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수요 기반 기술인재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배경, 문제제기와 해법 형식으로 구성해 설득력을 높였는데, 12대 주력산업의 기술인력 현황을 보여주며 전자, 화학, 소프트웨어 부분 부족률이 높다는 지적이 신산업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이에 수요 기반 기술인재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체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들을 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첨단 기술, 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협력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혁신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광역권 대학 연구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위의 블록펀딩을 확대하는 한편 10년 단위 이상의 중장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 등을 지원하고 도적적 핵심 원천 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수요기반 인재 활성화에 있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 촉진 성공사례로 미국의 경우를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지적하며 커리큘럼을 바꿔야한다는 제언이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0. 1.	시청률	0.081

【총 평】

‘마음이 머무는 곳, 평창 황토구들마을’편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고집하는 농사 경력 10년 차 주인공을 소개했다. 2004년부터 16년간 인도를 오가며 요가 수련을 한 주인공의 자연을 대하는 넓은 품새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영혼의 원천을 추구하는 은둔자 처럼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그녀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달라 그 자체가 특별했다. 원주민보다 이주민의 수가 더 많은 ‘황토구들마을’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웃 주민들과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매일 요가수업을 통해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홀로된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고 살피드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전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평창의 야생화가 울긋불긋 피어 있는 길을 따라 가면 ‘황토구들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서 양배추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친환경 농법으로만 먹을거리를 재배하겠다는 꼬장꼬장한 고집이 온몸에서 풍겨 나오고 있다. 작년 겨울 남편을 여읜 후 홀로 500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약과 제초제는 일절 쓰지 않는 자연농법만 고집하고 있는 그녀, 그녀의 자연주의 농사법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산)꼭대기에 살면서 화학비료 쓰고 농약을 물에 쏟아내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더라”는 소회를 통해 주인공이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짙고 굵은 오이와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 배추벌레가 기어 나오는 배추 등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건강함을 함께 공유한 시간이었다.

주인공은 2004년부터 인도를 오가며 공부하고 수련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황토구들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전통테마마을로 구들난방 체험장소이다. 이곳을 활용하여 매주 두 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가 실습과 철학을 가르친다. 수업 후에는 직접 만든 산도라지 차를 마시면서 학생이 아니라 마을 이웃이 되어 담소를 나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이웃도 있고, 일 년 살이 체험을 하고 있는 화가도 있고, 끝없이 이어지는 얘기에 풍경 소리가 장단을 맞추어 준다. 가끔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노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주인공의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일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서 시작된 평창강은 영월을 거쳐 서울의 한강까지 이어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은 듯하다.”며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을 남겼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0. 2.	시청률	0.010

【총 평】

‘지금까지 이런 정원은 없었다! 바위로 만든 정원’편에서는 바위투성이 악산을 18년 간의 정성을 모아 예술가의 정원으로 만든 귀산 35년 차 60대 중반의 성공스토리를 담아낸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바위산을 색다른 공원으로 만든 발상의 전환 모티브가 흡인력을 높였다. 숲속의 음악회를 앞부분에 내세워 관심을 유발하고 이끼정원, 하늘정원, 편백정원, 물의 정원 등 서로 스토리를 입힌 정원에 대한 설명이 흥미를 더했다.

이 밖에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숲속의 카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설치 미술 현장을 탐방한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살어리랏다’ 대부분의 소재가 부부중심 스토리였으나 바위처럼 묵묵히 자연을 지키는 부자(父子)를 소재로 한 구성이 특이했다.

【구성 및 내용】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바위투성이 산에 나무를 심고 바위정원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연과 예술, 사람이 소통하는 정원을 만든 주인공과 아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냈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정원을 꾸미려고 노력했던 주인공의 마음을 잘 담아내었다.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자연을 가꾸고 예술가의 정원으로 만든 과정과 모습에서 자연보호 메시지와 함께 힐링의 감동을 선사한 부분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수만리 풍경에 반해 아들 이름까지 수만으로 지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수만씨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평지를 만들기 위해 작업하다 나온 돌을 이용해 담을 만들고 그 위에 만든 커피숍은 SNS에 핫 플레이스로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의 발상의 전환 못지않게 자연 속 카페 아이디어를 낸 아들의 선구안이 빛났는데, “카페에서 커피 대신 뷰를 팔고 싶었다.”는 멘트는 광고 카피 같았다.

임업을 문화와 접목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콘셉트가 다른 4개의 야외 공연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끼정원은 비가 오고 난 다음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이끼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라 생각해 만들었다. 동파이프에 안개분사구를 설치해 안개를 수시로 뿜어주고 있다. 하늘정원은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만들고, 하늘을 보며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편백정원은 탐방로를 내려오면 나오는데, 주인공이 화순군 수만리에 반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물의 정원은 탐방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정원이다. 웅달샘, 연못, 댐으로 이뤄진 물의 정원은 수량이 많지 않아 적은 물로 충분하게 물의 정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1년 365일 물이 흐를 수 있게 설계했다.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름다움을 가미해 물의 정원으로 탄생하게 됐다. 주인공은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직접 몰며 정원을 가꾸고, 그동안 받아 둔 미술 작품을 정리하며 미술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점검하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정원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0. 3.	시청률	0.000

【총 평】

‘친북’은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태도가 급변한 북한의 속사정에 대해 한반도 종전 선언의 주체로 지목당한 중국의 설득과 북한과 핫라인을 연결해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는 의견이었다.

‘이슈 텔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문이 열릴 금강산의 가을 풍경과 함께 했는데, 붉은 색 고운 단풍과 구룡폭포의 웅장한 위용, 그리고 상팔담에 얹힌 전설 등 우리와 친숙한 금강산의 절경을 화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과 남북미중 회담을 제안한 후 김여정 부부장은 호의적인 글로 환영했고, 30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10월초에 남북통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23일 귀국길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표현했다. 즉, 종전선언이 앞서야 그 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뜻인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다.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및 정상회담 연설 후, 처음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부정적인 대응이 보도되었다가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대응은 이를 뒤집듯 동조의사를 밝혔고, 9월 2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바뀐 이유로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남북한 관계 완화를 환영했을 것이고, 국정원 핫라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재한 모종의 정보를 전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9월 29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정책을 발표했는데,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재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고, 과거에 비해 남북 대화의 조건을 상당히 낮추었다. 이러한 유화적 태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동력이 되어줄 전망이다.

‘이슈 텔링’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될 금강산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전달해 평화의 의미를 전달했다. 봄이면 금강산, 여름이면 봉래산, 가을이면 풍악산, 겨울이면 개골산으로 불리는 금강산의 절경 중 가장 아름다운 구룡폭포를 향해 가다보면 옥류동 계곡이 있고, 이곳은 남북한 물을 합수하는 행사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높이 74미터의 웅장한 낙수를 자랑하는 구룡폭포, 선녀와 나무꾼 동화의 주인공이 되는 상팔담, 9마리의 용이 지키고 있는 신비한 구룡연도 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10. 3.	시청률	0.032

【총 평】

‘꿈과 현실’, ‘요즘 애들이란?’편에서는 청년층의 꿈과 현실의 괴리, 공정사회 화두 속 개인주의와 수평적 조직문화의 실태와 갈등,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함께 숙고할 계기를 마련한 기획이 뛰어났다. 연기자 지망생 20대의 현실에 대한 고민, 집과 돈이 없어 결혼하기 어렵다는 청년층의 힘겨운 상황을 부각시킨 구성이 공감도를 높였다. 또 과외지도를 하는 20대가 겪은 10대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는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 시침분침이 있는 시계를 볼 줄 모르고 명품은 필수라는 10대들의 모습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지 화두를 던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공정한 사회, 개인주의,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MZ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아이টে็ม으로 적절한 소재였다.

【구성 및 내용】

과외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은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대다수 고등학교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아간다. 배우 준비생인 청년의 연기를 보고, 끈대할매가 배우의 자질을 이야기하자 청년은 자질을 ‘어른들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요즘 세대다운 답변을 통해 청년과 끈대세대의 생각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친구들이 차를 소유하는 것이 부럽다고 하자, 끈대할매가 돈을 모아 결혼하라고 했다. 이에 청년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 빚을 지기 때문에 집을 사기도 어렵고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청년 세대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지도를 하는 20대가 겪은 10대들은 너무나 다르다. 과외를 진행하면서 역사를 알려주다 보면 한국사를 중시하지 않고 MZ 세대들은 본인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데, 어떤 학생은 시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성인이 되어가면서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친구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현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한계가 있다. 타고난 환경을 자책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장년층의 지적에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 올라가기에는 기회가 많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그 위치에 머무르고 뺏아갈 계단 자체가 없다는 등의 반론을 전했다. 한편 요즘 세대들의 경우 개인주의가 보인다.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이 아쉽다.

끈대의 문제는 답답하고 잔소리가 많다는 수발러와 지금의 생활환경과 차이를 좋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끈대할매의 생각에, 수발러는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이 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0. 3.	시청률	0.000

【총 평】

뉴딜을 이끌다 'K-게임의 비상'편에서는 게임산업에 부는 '뉴딜 훈풍'과 게임 유해 논쟁, 그리고 게임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는 게임산업에 대해 짚어보았다. 게임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 과연 전반적인 경제력인지 아니면 일부 개인이나 그룹 단위의 경제력인지 따져보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고, 게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게임산업의 위치도 논의했다.

【구성 및 내용】

게임의 형식, 게임을 하는 방법, 환경 등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AI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재, 게임산업이 한 획을 긋고 있다. 옛날의 대표 게임인 젤 러거를 할 수 있었던 장소인 오락실 출입을 하면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고 학교에서 정학처분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게임을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플레이를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트렌드가 변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즐기고 있어 인플루언서가 몇 백만 명의 팔로워를 갖게 되고, 게임사들은 마케팅이나 게임 개발에 있어 인플루언서들이 좋은 게임과 게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게임 세계에서는 중요한 선수같은 프로게이머가 있고, 일반 아마추어들이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으로 게임 등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 중간에 유저들에게 게임을 설명해주는 인플루언서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통제하려고 이용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례이다. 유럽의 경우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정해서 일정한 원칙을 따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녀를 위해 자녀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화와 교육으로 유도해갈 필요가 있다.

한국 게임 콘텐츠도 세계 수준으로 만들면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 VR과 AR처럼 다른 산업의 기반재로 사용되는 것을 게임 산업 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게임에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게임회사의 기술이었던 빅데이터에 AI기술을 접목해 유저분석 기술을 금융, 서비스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의 AI기반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댐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기술은 게임에서 온다. AI가 산업에 활용되는 것도 게임이다. VR, AR같은 가상 융합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도 게임이고, 현실산업의 선두를 이끌어 갈 잠재력을 지닌 것도 게임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0. 3.	시청률	0.000

【총 평】

‘2022 예산안 어디에 쓰이나’편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 목표와 함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안별로 깊이 있게 점검해 보고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 이슈를 팩트 체크로 분석한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해지는지,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 아닌가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팩트체크해 사실을 바로 잡은 구성이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내년 예산의 쓰임새를 디테일하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수용자의 만족도를 인터뷰로 알아본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 쓰이나?’편은 2022년도 예산안 공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안의 사용처와 타당성 등을 짚어주었다. 이와 관련 질병청 예방접종 예산, 생활경제 회복,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사업 일부를 전했다.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2021년도 558조원에 비해 2022년에는 604.4조원으로 늘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슈퍼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우려와 함께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 속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2023년부터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배정된 3조 원 중 대부분은 안정적 접종과 수급을 위한 백신접종에 쓰인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미국 머크사와 접촉 중이다.

코로나19로 생활격차는 심화되었다. 학교 현장의 경우 학력 격차가 생기고 있으며 당장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보다 수입의 감소가 더 두렵다. 내년부터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264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또한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고충 또한 심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이 되더라도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철거비용, 법률자문을 진행한다. 경영단계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 총 3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여건이 악화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세대 표를 겨냥한 현금살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더불어 군장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는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